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5월 30일(금) 16:0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5월 30일(금) 16:00**

**'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' 1R 오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|
| 2 | 기 간 | 2025년 5월 30일(금) ~ 6월 1일(일) |
| 3 | 장 소 | 더스타휴 [휴(OUT) / 스타(IN) 코스]  |
| 4 | 주 최 | Sh수협은행, MBN 매일경제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예선: 6,787야드, 본선: 6,678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이예원, 박현경, 박보겸, 김민선7, 홍정민, 고지우, 지한솔, 박지영, 정지효 김시현, 송은아, 이채은2, 이소영, 박민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정윤지 1라운드 중간합계 8언더파 64타 \*16시 기준 단독 선두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820>

**오늘 8언더파로 마무리한 경기 소감?**
전체적으로 순조롭게 흘러가서 모든 부분이 잘 풀렸다.

**그중에서도 가장 잘된 부분을 꼽자면?**
요즘 답답했던 퍼트가 오늘은 특히 잘 됐다.

**요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,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?**
퍼트랑 퍼트에서 비롯되는 멘탈이라고 생각한다. 퍼트를 미스했을 때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,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.

**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?**
퍼트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. 리듬, 스트로크, 정렬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며 연습해왔고, 결국 중요한 건 멘탈이라는 걸 깨달았다.

**조금 조급한 것 같기도 한데,**

시즌 초반에 잘 풀리면 후반이 조금 편해지는 경향이 있다. 그걸 원하다 보니 오히려 조급해지고, ‘이번엔 우승해야 한다’는 압박감이 커지기도 한다. 주변에서 ‘이번엔 꼭 우승’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, 첫 우승 이후 벌써 3년이 지났다. 그게 마음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.

**하루에 퍼터 연습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?**
4월부터 꾸준히 퍼트 연습을 하고 있고, 매일 2시간씩 하고 있다. 연습하다 보면 때로는 연습에서도 안 되는 게 보일 때가 있고, 그럴 땐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한다.

**남은 이틀, 단독 선두로서의 각오는?**
스코어보드 맨 위에 내 이름이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. 하지만 오늘 플레이는 오늘로 끝내고,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하려 한다. 욕심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경기에 집중하겠다.

**◈ 박현경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\*16시 기준 공동 3위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30>

**오늘 이글 하나와 버디 네 개로 6언더파를 기록했다.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어땠는지?**
지난주에 샷과 퍼트 감이 모두 좋은 상태에서 시즌 첫 승을 기록했는데, 다행히 그 감이 이번 대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. 큰 위기 없이 노보기로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. 특히 이글을 두 대회 연속 기록했는데,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지금 흐름이 정말 좋다고 느낀다.

**비거리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엔 어떤지?**
비거리도 조금 늘었지만, 그보다 정확성이 더 좋아졌다고 느낀다. 거리와 정확성이 모두 좋아지면서 페어웨이에서 세컨드 샷을 할 기회가 많아졌고, 아이언 샷 감도 좋아 전체적으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다.

**이번 대회에서 세부적인 목표가 있다면?**
연속 노보기 플레이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가 스스로도 궁금하다.

**본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?**
생각의 차이라고 본다. 실수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,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. 위기를 잘 넘기지 못했을 때,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음 샷에 임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느꼈다. 요즘은 보기나 실수가 나와도 ‘그럴 수 있다’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한다. 남은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덤덤하게 받아들이고, 차분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

**◈ 이예원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\*16시 기준 공동 3위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84>

**오늘 6언더파,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마무리했다. 경기 소감은?**
저번 주에는 샷 감이 좋지 않아 컷 탈락을 했지만, 이후 휴식도 취하고 샷 조정도 하면서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였다. 그런데 오늘 1번 홀부터 실수가 나오면서 흐름이 안 좋을까 봐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 다음 홀부터는 버디를 많이 만들기 위해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했고,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를 했다.

**휴식 기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?**
그 전 주에 두산 매치플레이를 치르며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, 몸 상태가 회복되면 샷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다. 푹 쉬면서 프로님께 교정도 받고, 샷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.

**작년에 노보기로 우승한 좋은 기억이 있는 대회다. 이번에도 노보기를 기대했는지?**
솔직히 이번에도 노보기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. ‘오늘은 보기 하나쯤은 나오겠지’라고 생각했는데 1번 홀부터 바로 나올 줄은 몰랐다.

**작년과 비교해 가장 발전한 부분이 있다면?**
아이언 샷도 더 날카로워졌다고 느끼지만, 특히 중거리 퍼트가 많이 좋아졌다. 10미터 안쪽은 모두 버디 찬스라고 생각하고 치면서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. ‘10미터는 넣을 수 있다’는 마인드로 퍼트를 하다 보니 경기 흐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.

**내일 각오?**

자신감 있게 현재에 집중하겠다.